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11.(수)	**사진 · 영상**	사진(○),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11일(수)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동호**	☎044-300-7180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동호 의원, “집현동 BRT 접근성 개선하고 이응버스 공급 확대해야”

– 이응버스 적정 공급, BRT 연계 순환형 시범운행·구체적 개선 계획 수립 촉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호 의원(집현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현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언급하고, BRT 접근성 개선과 이응버스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집현동은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지역 특성상 새나루마을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BRT 정류장까지 1km 이상 이동해야 하는 등 주민들의 보행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폭염과 한파, 우천 시에는 이러한 불편이 더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이응버스의 긴 배차 대기시간과 BRT 접근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고, 세종시 역시 일부 단지의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그럼에도 구체적인 개선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활권별 이응버스 공급 격차를 지적하며 운영 실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2026년 주요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이응버스는 1·2생활권에 25대, 3·4생활권에 4대가 배치돼 있으며, 2025년 이용객은 각각 51만 19명과 4만 8,638명으로 집계됐다. 차량 배치 규모는 6배 이상, 이용실적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용자가 적어서 차량을 적게 배치한 것인지, 차량이 부족해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먼저, 3·4생활권 이응버스의 적정 공급 규모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단순 이용실적뿐 아니라 호출 성공률, 평균 대기시간, 미 배차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교통수요에 맞는 차량 추가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나루마을 주요 아파트단지와 BRT 정류장을 연결하는 ‘집현동 BRT 연계 순환형 이응버스’ 시범운행을 제안했다. 기존 222번 등 지선버스와의 노선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수요를 우선 반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세종시가 단지별 BRT 접근성과 주민 수요를 조사하고, 시범운행 추진 여부와 결정 시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버스노선을 무조건 신설하거나 BRT 노선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통체계를 유지하면서 BRT 정류장까지의 연결교통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

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중교통의 편리함은 버스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가 아니라 시민이 집에서 정류장까지 얼마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의 위치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시가 검토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